

2015년 ~ 2017년 이후의 중국

- 세계에서 가장 큰 고급 제품 소비국의 하나 될 듯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 BCG)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5 ~ 7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의 고급 제품 소비국의 하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의 고급 제품 점포의 수와 양은 뉴욕이나 시카고와 맞먹고 있으며, 중국 2급 도시에서 고급 제품 브랜드의 새로운 점포가 연달아 개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BCG 대중화권 매니저(大中華圈 manager)인 여황(呂晃 : Vincent Louis : 빈센트 루이)씨는 “중국에서는 고급 제품 점포의 과반수가 최근 3년 이내에 개업하였으며, 고급 제품 브랜드의 중국 경쟁은 그동안 규모 확장에 힘써 오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이미지 업(image up)으로 시프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여황씨는 “2015년까지는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고, 중국 고급 제품 시장은 세계 총량의 29%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BCG는 2009년에 중국인 소비자 2,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급품 소비자는 25 ~ 35세가 주체(主體)로, 40세가 넘는 구미 여러 나라보다도 훨씬 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황씨는 “중국인 소비자의 대부분은 그다지 고급 제품 브랜드를 모르며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브랜드를 찾고 있다. 고급 제품이 새로운 소비자를 잡

을 찬스는 크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의 조사에서 거의 70%의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에 쇼핑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자면 홍콩의 고급 제품 판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본토 소비자에 의한 것이었다. 일부 본토 관광객이 홍콩에서 소비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들이 소재 도시(所在 都市)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금액보다도 많다.”고 말하였다.♣